



밑빠진 그릇이었나?



김병숙
지음

무화과

밑빠진 그릇이었나?



1. 우주인 예수를 만나다.
2. 21세기와 새복음
3. 가까워진 천국
4. 신과 우주와 인간
5. 해와 달이 된 오누이
6. 청소년과 지구의 미래
7. 증산과 아쉬타 사령관
8. 히말라야의 예수와 붓다
9. 이상한 나라의 지구
10. 특별한 시대를 살며
11. 밑빠진 그릇이었나

김영숙
저음

밑빠진 그릇이었나

출간일 2018년 6월 30일

지은이 김병숙

발행인 김병숙

출판사 무화과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1-13

휴먼시아 동화마을 105-206

등록일 2018년 4월 3일 (등록번호:829-95-00580)

전 화 031-235-2547

E-Mail jesusufo2@gmail.com

cafe.naver.com/jesusufo5

blog.naver.com/jesusufo5

homepage jesu-ufo.com

© 무화과 2014년 5월

ISBN:979-11-87209-44-7



지금까지 지구에서는 여성 에너지가 오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를 혼란과 어둠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은 부드럽고 포용하는 여성 에너지에서

찾아야 합니다.....아크트루스 우주인



< 서문 >

계절은 겨울에 접어들었지만 산책길에서 만난 신선한 바람과 눈부시게 밝은 햇빛, 그리고 구름 한점 없이 높고 푸른 하늘은 마치 가을이 아직도 남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따뜻하게 와 닿는 초겨울의 햇빛과 푸른 하늘을 보며 우주인 예수인 사난다님의 어떤 메시지가 떠올랐다. 태양은 행성들에게 열과 빛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행성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빛과 열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밝고 푸른 대기층을 벗어나면 우주의 하늘엔 빛도 없고 열도 없어서 마이너스 수백도의 우주환경을 실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신은 곧 빛이다.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을 정도로 지구의 과학은 발전했고 또 빛의 입자들은 신성의 입자에 매우 가깝다는 것도 21세기의 과학은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빛의 입자 이전의 근원적 존재는 빛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라고 한다. 지구의 과학용어를 빌리면 광양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발진되는 그 광양자가 지구에 와서 지구의 물질입자들과 만날 때 그것이 빛이 되고 열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나 신성의 존재들도 같은 원리에 의해 지구인들에게 와서 이해되거나 아니면 몰이해되거나 할 것이다. 신성의 원리가 제대로 이해되면 인간의 자기인식과 삶에 빛이 될 수 있지만 이해되지 못하면 캄캄한 어두움의 신성으로 남을 것이다. 우주선 창밖으로 보이는 우주의 하늘이 캄캄하게만 보이듯이 말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면서 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비로서 이해되고 풀이가 가능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시대 정신이라는 뜻의 뉴에이지적 시각으로 보면 감이 잡히는 사건들로 연결된 것이 최순실-박대통령 게이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정신에 전혀 어두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두 사람의 관계였던 것이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씨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언 혹은 계시가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을 간과한다면 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씨가 처음 최태민씨와의 접촉을 통해 받은 영향이 사이비종교 정도였는지 아니면 UFO 현상에 기초한 과학적 시대정신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것은 양 부모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불의의 총탄에 쓰러졌고 자신도 선거운동 중에 목에 칼을 맞았다는 범상치 않은 운명을 만났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당선된 후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경호원이라도 되듯이 시커먼 썬글라스를 착용한 어느 외국인이 박대통령의 바로 뒷자리에서 사진에 찍혔다.



아버지의 체취가 느껴지는 청와대에 입성한 후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했고, 최순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정부의 요직에 앉혀도 손색이 없는 인물로 보였을 때, 오랫동안 자매처럼 살아온 최순실의 학력이나 교양에 비추어 어떻게 그런 인물들을 추천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기도 했을 것이다. 아버지 최태민씨에 못지않게 그 딸인 최순실에게도 하늘의 계시(?)가 내려지고 있다고 믿게 된 것은 아닐까?

요한복음 4장에는 씨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에 관한 의미심장한 예화가 있다. 바로 이 시대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적 예화인 것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의 한 우물가에서 과거가 복잡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자기의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젊은이의 신통력에 놀라 온 동네에 소문을 냈다고 한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희들은 녁달이 더 있어야 추수의 때가 온다고 말하지만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벌써 일하는 일꾼이 샅을 받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다. 씨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 맞다. 이는 씨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기 위함이다.

아직 녁달이 더 있어야 추수의 때가 온다면 이제 막 씨를 뿌린 시기에 예

수님은 사마리아에 도착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벌써 일하는 일꾼이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한 것일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부지방이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종교도 민족도 혼합된 지역이었다. 우물은 생명수를 뜻하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젊은 선생을 소개한 여인은 이 시대의 뉴에이지 전달자를 상징하고 있을 것이다. 씨뿌린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기독교인들이고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이 시대의 뉴에이지적 일꾼들을 뜻한다. 이 시대는 성숙과 추수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삶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라고 했다.

지구의 과학문명은 핵무기와 각종 화학무기를 만들어 나라마다 지하에 저장해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태다. 만일에 지구에서 3차대전이라도 터진다면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웃들에게도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 궤도를 이탈한 ‘파괴자 행성’에 관한 예화도 들려주며 절대적으로 평화로운 문명에 도달해야 한다고 수많은 접촉사례를 만들며 알려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도 그런 접촉사례 중의 하나라고 보면 최순실 게이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삶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란 우주의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멜기세덱 우주인들을 뜻한 것이다. 20세기 말에 있으리라던 마지막 때가 2060년 경으로 연기된 것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과 같은 재앙적 불행을 겪지 않고 무사히 문명적 과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지배적이고 공격적 성향인 남성 에너지가 아니라 부드럽고 용납하는 여성적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지구의 현실이라고 여러 메시지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여성 대통령과 여성 총리, 장관들, 사회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어떤가? 이제 겨우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양 부모를 잃으면서까지 아주 어렵게 등장했는데 국가적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오명으로 남게 되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고 남녀동권의 시대를 열어가라고 알게모르게 지원해 주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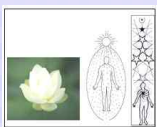
햇빛이 지구에 와 닿아야 빛과 열을 발생시킬 수 있듯이 뉴에지 정신도 그것을 이해하고 수납하는 자세가 있어야 수용되고 이해되는 게 아닌가 한다. 기독교의 씨는 서양에서 뿌려졌지만 그 열매는 동양에서 성숙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계시적 예언이었을 것이다. ‘삶을 받고 일하는 일꾼’ 들인 멜기세덱들은 지구인들이 화합하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명이자 지구를 장악하는 것이 목적일 수는 없다. 우주의 법이 그런 과도한 욕심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어떤 눈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장래는 희망적이 될 수도 있고 굴러온 복을 발로 차는 결과도 될 것이다.

큰 그릇엔 큰 복이 담길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만난 새누리당이 당 심볼을 커다란 그릇 형태로 만든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그 그릇에 새것을 담으려는 노력이나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밀빠진 그릇으로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쉬운 마음이다.



저자 김 병 속

(사용된 인용문들과 조각그림들의 저작권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차후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차례 >

1. 민족종교에 대한 거부감과 시대정신
2. 시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3. 주관과 객관, 속박과 자유...../23
4. 재탄생의 진통들
5. 잘 나갈 때 조심해야
6. 권력의 정상에서의 위태로움
7. 4개의 눈을 가졌던 문자의 아버지
8. 최순실 미스테리와...../42
9. 천지의 원주인
10.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11. 도깨비 감투와 방망이
12. 옛날 도깨비와 현대의 도깨비
13. 탕자와 '제3의 길'...../60
14. 손쉬운 희생제물
15. 나 자신과의 싸움
16. 의식의 힘과 사랑의 힘
17.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75
18. 씨뿌린 사람과 옮겨심는 사람
19. 역사의 신과 우주의 파리들
20. 우주의 원앙새들
21. 신의 자녀와 신의 인형의 차이
22. 지구의 주권과 탕자와 세균...../94
23. 지혜, 힘, 정의와 내 눈의 티
24. 나무들은 자란다. 겨울을 넘어서
25. 이상적 여성 다루파티와 바가받기타
26. 계시의 시대이자 고난의 시대
27. Pax Earth와 요한계시록...../119
28. 태아가 산부인과 의사를 만날 때
29. 신의 심판과 재탄생의 기로에서
30. 핵실험과 병겁의 관계
31. 도깨비들과의 투쟁?
32. 우주의 바둑판 행성...../137
33. 탕자와 이단자들의 실수...../140
34. Iamness와 조건없는 사랑
35. 광음천과 인간의 삶
36. 정신적 힘과 물리적 힘
37. 동이족의 조상 묘족...../154
38. Iamness는 무지에 대한 답이다.
39. 경주와 신라
40. 머리와 가슴, 과학과 종교
41. 서양의 천자신이 넘어왔으나
42. 낳기는 제 어미가 낳아도...../174
43. 하늘의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44. 어리석은 투쟁주의
45. 대통령의 구속을 보며
46. 우주인들의 지구개입
47. 자유의지란 무엇인가?...../190
48. 지구의 여성들에게 주신 메시지
49. 평가름이 아니라 '얇'의 문제다.
50. 3단계의 선택의 길
51.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52. 이용 당하는 민주주의...../207
53. 희생제물과 역사의 심판
54. 패권주의인가, 열등의식인가
55. 친미/반미 주의와 장자의 우화
56. 약육강식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57. 새누리당과 작은 그릇...../227
58. 집안에 든 도둑과 정의, 사랑
59. 도깨비들의 비덱 프로젝트?
60. 만파식적과 마젤란 은하
61. 바보들이 되지 맙시다...../240
62. 탄핵법정의 판결에 대한 유감
63. 보수진영이 패하고 있는 이유들
64. 정치적/정신적 피식민자

- 65. 앵무새가 되느냐 홍관조가 되느냐
- 66. '미투'운동과 클라리온 행성..../259
- 67. 한 정치인의 죽음과 지구의 현실
- 68. 3-4차원 학교를 졸업해야 할 때

- 69. 여성과 지구의 운명...../269
- 70. 보수와 진보 그 뿌리를 찾아서
- 71. 끝맺음의 글



< 1 > 민족종교에 대한 거부감과 시대정신

3개의 종편방송 채널까지 더해져서 넘쳐나는 미디어가 일제히 최순실씨와 박대통령 사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또 하나의 소음을 더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면서도 늙은이의 노파심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20세기 말부터 극심해진 각종 말세적 불행들이 겹쳤고 현재도 그러하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아니 세계인 모두가 극도의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그 스트레스와 피해의식이 중동에서의 시위와 내란과 정권붕괴의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중동에서의 문제는 석유의 축복이 정의롭게 분배되지 못했다는 종교적 종파의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겠지만 과거처럼 참지만 않고 불만을 폭발시켰다는 점에서 시대적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순실씨 사건에 대한 우려의 중심에 ‘오방색 주머니’와 샤머니즘에 대한 반감이 있음을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다. 굿을 하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미신에 기대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것은 분명 사회적 문제의 하나다. 민주주의가 실시되다 보니 딱부러지게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는 참지도 못한 채 남모르는 피해자들은 뉴스보도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그런 문제가 다른 나라에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통이라는 그 질긴 지배적 의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 인도의 일부 지식층은 IT 분야에서 세계적 실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도 길거리에는 소와 원숭이와 심지어 쥐들까지 오랜 신앙적 관습 때문에 제 세상인양 활보하고 있다고 한다.

박대통령의 취임식 때 사용되었던 ‘오방색 주머니’가 일부 국민들에게 상

당한 거부감을 주었던 것 같은데, 국민에게 복주머니를 선물하겠다는 정성으로 만들어진 취임식 축하행사가 왜 무당의 굿판으로만 보였을까? 그런 느낌은 특정 종교인들에게만 나타났던 심리적 현상 아니었을까?

환단고기라는 고대문서가 빛을 보게 된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선 민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민족종교인 단군숭배 사상도 활기를 띠면서 그런 현상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났던 것이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 설치되었던 단군상의 목을 자르는 사건도 발생했던 것이다. 그 사건이 기독교인들에 의한 행위였을 것이라는 소문은 틀린 짐작이 아닐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우상숭배를 큰 죄악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고 민족종교는 일종의 우상숭배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단군신화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다는 사실이 환단고기를 통해 밝혀지면서 그 고대문서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민족주의라는 비난도 받게 된 것은 사실이다. 단군신화가 단군조선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그 문서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과 역사적 고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배타적 민족주의나 동북아주의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환단고기의 내용들은 중국의 고문서들도 기록하고 있는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증적 사료들을 찾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계에서는 그 일에 착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대략 엮어놓은 소위 식민사관적 역사기록들만 굳게 보호(?)하고 있는 것 같다.

역사학자들의 그런 심리적 배경에도 역시 이 시대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적 불안감과 고통들의 배경에는 시대의 악마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공포심과 함께 타종교에 대한 배척의식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고, 나의 종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우상숭배요 악한 귀신들의 활동이라고 단단히 마음의 문을 걸어잠근 건 아닐까?

단군신화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환단고기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역사학자들이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유교, 불교, 기독교의 위세가 민족종교의 위세를 압도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라도 민족종교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

해서는 종교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그 종교의 뿌리가 되었던 단군신화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뿌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환단고기라는 고대문서인데 민족종교를 압도했던 외래 종교들의 기세가 그 문서의 고증적 분석과 해석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그 문서를 대하는 역사학계의 인사들도 종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문서에 대한 필자의 해석을 간단히 말하자면 아래와 같은 문구에 그 문서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고대의 샤머니즘이 아니라 알타이족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주성(主性)인 자아(自我)를 발견하게 함으로 크게 기뻐하며, 세계 인류의 대합(對合)과 공존을 깨닫게 함으로써 크게 기뻐하는 바이다.

고문서들을 규합해서 환단고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펴낸 계연수의 간략한 소견을 나타낸 글이다. 최순실씨와 그 주변 인물들이 대통령 취임식 때 오방색을 사용한 것은 그것이 자연스런 민족의 전통적 색깔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무당의 굿거리가 유행하는 것은 샤머니즘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인류의 지적 수준도 향상된 시점에서 원시인들의 샤머니즘을 새삼 불러올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문서들을 모아 환단고기를 엮은 계연수라는 사람의 정신은 그 고문서들에서 그런 샤머니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아가 인간의 주성임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아는 불완전하고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주성임에는 틀림없지 않은가? 자아의 불완전성을 넘어 완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인간의 주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이 시대가 인류 대합의 공존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시대인 것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당면한 인류적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주성(主性)인 자아(自我)를 발견하게 함으로 크게 기뻐하며, 세계

인류의 대합(對合)과 공존을 깨닫게 함으로써 크게 기뻐하는 바이다.

위의 문구는 비단 한국국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느 민족에 속해 있더라도 혹은 어떤 종교에 속해 있더라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야 할 시대정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는 분리와 배타적 정신이 아니라 하나됨과 화합의 정신을 무엇보다 앞세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 2 > 시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오래된 격언 중에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다. 이 고통스럽고 소란스러운 시대에 비추어 말한다면 시대를 모르는 자는 망하고 아는 자는 흥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를 안다,고 하는 그 ‘시대’의 의미를 우선 생각해 보자.

12황도대라고 하는 별자리들의 기준으로 따질 때 지금은 보병궁 시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병궁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아는 것이 곧 ‘**시대를 아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별자리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은하의 중심태양을 공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공전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약 3억년이 걸린다고 한다. 보병궁 시대란 보병궁 별자리가 자기 궤도를 한 바퀴 돌았고 새로운 공전 주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그 보병궁 별자리가 지구의 자전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우리 지구에서는 21세기와 함께 시작된 것이다.

별자리와 거기에 포함된 수많은 태양들과 행성들이 것처럼 은하의 중심태양을 도는 것은 변화를 통한 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 지구 태양계와 지구도 보병궁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한 차원 진화하는 시대를 만난 것이다. 아니 이미 우리는 4차원으로 진화한 행성이 되었음이 과학적 발전을 통해 증거되고 있다. 물론 과학적 발전만 가지고 지구가 총체적으로 4차원으로 진화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꼭 수반되어야 하는 정신적/영적 발전이 필요한 것이다. 아니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영적 발전이 앞서서 과학적 발전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행성들의 문명은 그 순서가 바뀌어 나타나기 때문에 과학무기에 의한 자멸의 수순을 밟는 행성이 더 많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나라를 들쭉이게 하고 있는 최순실씨 사건을 생각해 보자. 그 일가의 권력을 등에 업은 부정축제도 문제지만 그보다 최태민과 그 딸인 최순실씨의 샤머니즘적 정신세계가 현실정치에 미친 영향을 더 우려하는 것 같다. 샤머니즘 시대의 신정(神政)일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민족종교인 증산교의 교주 증산선생도 원시반본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인들이 작금의 소요사태 중심에 있게 되었을 것이다. 즉 시위사태를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문제 역시 ‘시대를 아는’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보병궁 시대란 원시반본의 시대로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원시반본(原始反本)이란 단어에 대한 선입견은 불길감마저 준다. 과학문명이 붕괴되고 원시 문명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산선생은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은 아닐 것이다. 태초에 성인군자들이 다스렸던 시대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성인군자의 표본이 되었던 요임금과 순임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고 우리 조상들인 환인/환웅님이 다스렸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던 것이다.

지구에서의 소위 ‘현대문명’은 민주주의/자유주의가 최고의 이상주의로 실시되어 왔지만 그 결과가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 되었다. 대통령 위에 최순실이 있다는 말도 현실로 들어나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최순실 일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신정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논리는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정치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던 말인가?

요순임금 시대와 단군 시대에는 성인군자가 다스리는 시대였지만 백성들은 원시인 수준에 있었으니 문자 그대로의 원시반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지구인 모두가 한 번쯤은 대통령이 되어보고 싶어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무엇인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보다는 잘할 것이다.는 뜻 아닌가?

우리가 이미 진입해 있는 보병궁 시대는 한 단계 진화한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과학적 진화와 함께 반듯이 수반되어야 하는 정신적/영적 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제3의 천국'을 바라보는 정신운동일 것이다. 그러나 '제3의 천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의 천국이라는 뜻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우주 선진문명들과는 조금 다른, 보다 이상적인 천국을 건설해 보자는 것이다. 아이작 뉴턴이 살았던 시대에 30년 동안이나 우주인들과 접촉하며 천국에도 갔었다는 스페든보리 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본 천국은 3계층으로 이뤄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위에 있는 최상위의 천국은 아직 비어 있다는 천사의 실명이 있었다 한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우주의 선진 문명들은 우리의 정치감각으로 볼 때에 전체주의로 다스려지는 세계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주의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이기 때문일까?

그러나 긍정적 자가판단을 내린다면 진보적 천사들의 후손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전체주의에 반하는 개인주의/민주주의/자유주의 역시 전체주의에 못지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우주인 예수인 사난다님이 제시한 것이 '제3의 천국'에 대한 이상주의인 것이다. 아래에 그 메시지를 소개한다.

여러분의 정신능력과 과학기술을 훨씬 앞서있는 은하인들은 여러분처럼 느끼심으로 살지 않고 오직 생명에 관한 연구와 지적 탐구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신의 법칙을 받아들여 거기에 순종하지만 창조주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사랑의 감정이 없이 단지 지성적으로 그 법을 따릅니다.

사랑의 감정이 없이 산다는 것은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없고 5감도 없는 육체로 산다는 뜻이다. 고차원으로 갈수록 중성이거나 성구별이 아예 없는

생명체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제3의 길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풍부한 감성과 육체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은 가슴으로 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 안에 살면서도 어떻게 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그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감성에 대해서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요. 여러분에 대한 아버지신의 계획은 자유지와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 우주의 이 지역에서 새로운 종(種)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¹⁾

자유지란 에덴동산에서처럼 지혜를 금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1원성이 아닌 2원성, 즉 남/녀의 양성으로 산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실은 현재의 우리와 같이 감정과 감각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과 불완전성들을 가지고는 제3의 길이 열릴 수 없다. 다만 모든 구도자들의 목표인 구원/성령/해탈에 도달했을 때 비로서 제3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이 만든 세상이 곧 '제3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벌써 75억에 다가가고 있다는 인구 전체가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엘리트와 지도자급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구는 이미 4차원 에너지권에 진입해 있다고 한다. 우주의 이웃과 선배님들과 조상님들이 그 놀라운 과학기술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커다란 축복으로써 말이다.

1) 은하문명 간 '예수그리스도의 충격 메시지'에서 인용.



< 3 > 주관과 객관, 속박과 자유

오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고대 유적들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라는 국가가 시위와 정권붕괴, 연이어 내란을 겪는 사태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던 때가 기억난다.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상태의 국난을 만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필자 혼자만의 마음은 아닐 것이다. 새마을 운동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한강의 기적’이 이집트의 현재 상황처럼 뒷걸음치는 운명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대학생, 교수, 시민단체가 모두 들고 일어나 매일 밤 촛불집회를 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한다. 박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민의 정서가 그만큼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문제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언론들이 이런 사태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붓는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 같아 언론도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음을 실감케 한다. 정치권력만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를 위한 문화융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등에서 자금을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모 비서관의 증언을 듣다가 깜짝 놀랐다. 중동의 두바이 경제계와 연결된 모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도 최순실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강남 아줌마’라고 폄하되어 불리는 그녀가 어떻게 저 머나먼 두바이의 경제계와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세계 경제에 밝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그녀가 박대통령 위에 있다고 할 정도로 박대통령의 그녀에

대한 의존적 심리가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다 한다. 독일에 건너가 이권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크게 도움이 되어준 한국계 독일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평범한 ‘강남 아줌마’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박대통령이 국정에서의 난제를 만나거나 심지어 자신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도 옆에 최순실이 없으면 불안해 했다는 이야기들은 무엇을 뜻할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목에 칼을 맞은 사건 이후로 청와대 내에서조차 신변적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고, 또 최순실의 배경에는 미스터리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 아닐까? 그 미스터리라는 것이 최태민 부녀의 사교적 최면술이거나 샤머니즘적 초능력이라고 간단히 치부할 수 있을까?

해마다 설날이 되면 선물로 주고받았던 ‘복주머니’도 무당의 복주머니가 되어 ‘오방색 주머니’라는 이름으로 이번 사태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설치되었던 단군의 목을 잘랐던 사건과 비슷한 ‘우상숭배’ 거부감의 재현 현상일까? 그 잠적했던 우상숭배에 대한 거부감이 최씨일가의 부정축재에 대한 분노와 함께 재폭발 된 것일까?

1980년대에 민족적 고대문서인 ‘환단고기’가 빛을 보게 되면서 기독교와 민족종교의 보이지 않는 경계심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때를 같이 해서 전 세계가 말세적 상황들을 겪으며 고통하고 절망하고 극히 혼란스런 시대를 살아온 것이다. 천사와 악마의 대립이라든가 흑과 백의 대립이라는 수많은 영화도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실감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현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번의 최씨 일가의 문제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순실 일가가 놀라운 권력적 힘을 발휘한 것이 박대통령의 의존심과 특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가의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초현상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불치병을 고친다든가 미래를 예측하는 초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초현상적 권력이 그 일가의 주변에서 나타났던 게 아닐까? 요즘은 스포츠인들도 골을 넣거나 골프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면 하늘을 향해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는가? 또 홀인원은 어찌 그리 자주 나타난단 말인가?....

초현상이 도무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금기의 대상이 되었다. 기독교에서는 **예언이나 방언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했듯이 말이다. 예언, 방언, 병고침 능력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을 때에는 그것들이 금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그런 것들에 천착해 보았자 시간낭비이고 헛수고일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뉴에이지’라는 새로운 정신운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뉴에이지의 중심에는 ‘신과의 직접적 소통’이라는 어려운 주제가 있기 때문이다. 초능력, 그것은 사실 순수한 목적이 아닌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수동상태의 능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사와 악마도 종이 한 장의 차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초능력을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사도 악마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적도, 예언도, 방언도 ‘사랑’만 못하다는 사도 바울의 해석은 옳았던 것이다. 그러면 왜 우주인 예수인 사난다님도 또 우리 우주의 지고자이신 미카엘 대천사도 성경의 자구 그대로를 믿지 말고 과거의 종교이념에서 벗어나라 하시는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과거의 예수님이나 미카엘 천사도 또 12제자도 모두 광활한 우주를 무대로 해서 살았던 우주인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새롭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종교 자체가 커다란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수술대의 의사가 사용하는 도구는 칼이고, 그 칼을 맞는다는 것은 고통스런 자기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시대는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시대이고, 정신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획기적인 변화들이 발생해야 하는 시대다. 국제관계에서나 경제체제에서나 문화계에서도 경쟁과 분쟁이 아니라 상호이해와 화합과 통합이 필히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저 광활한 우주에서도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1세기의 지구 태양계는 보병궁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쌍어궁 시대 2천년이 끝나고 보병궁 시대 2천년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늘’은 이미 19세기에 이 시대를 준비하며 **리바이 도울링**이란 사람을 통해 이 시대를 예언하게 했다. 그로 하여금 ‘보병궁 시대의 성서’라는 책을 쓰게 했고, 기독교 경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시각을 갖도록 지구인들을 안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리바이 도울링이란 사람을 택해서 메시지를 전한 ‘비셀’이라는 우주인은 계시적 영상도 보여주었다고 한다. 지구의 역사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아카식’ 세계에서 리바이 도울링이 본 영상은 성삼위일체의 면전에서 천사들이 새로운 임명장을 받는 광경이었다고 한다. 즉 태양계가 보병궁 2천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지구 태양계를 책임질 천사들의 지위에도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리바이 도울링이라는 이름은 다시 등용되어(Re-buy) 조력자(도울링)로 일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이름일 것이다. 수천년 동안 지구에 파견되어 멜기세덱으로 살아오신 우주인 아쉬타(증산)는 20세기 말에 지구를 떠났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등용되어 지구의 변화와 승격을 책임지는 천사로 지명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기 위해 그런 이름의 사람을 선택했던 게 아닌가 한다.

믿고 말고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고, 리바이 도울링이 보았다는 아카식 세계의 영상은 믿을 수 있는 예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천사들의 지위도 바뀐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사난다님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 같은 물질세계로부터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지구에 오고싶다는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는데,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시다**.....는 7차원의 ‘중심태양’ 세계로부터 4-5차원의 지구로 삶의 무대를 옮긴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지구의 역사와 함께 한 멜기세덱이기 때문에, 아쉬타님이 이 변

화와 소용돌이의 시대를 다시 책임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업을 마무리하신 후에는 지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언급하신 ‘고용된 일꾼’의 의무가 끝나면 보다 고차원의 임무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래된 흑백논리의 포로가 되어 불안해 하는 것보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 때일 것이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너무 흥분하고 집착한다면 그 문제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모두 지나갈 일들이니,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서 작으나마 자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시공간적으로 확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4 > 재탄생의 진통들

어린이들도 온통 어른들의 유행가만 따라하는 요즘에 아주 반가운 노래가 방송에 자주 등장했었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손에 손 잡고.....

최순실씨와 박대통령 사건이 지금 막 중반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부터 발생했던 기독교와 민족종교의 대립이 있었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회 전반적 대립이 붓물이 터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최씨 일가의 부정축재와 국정농간이 문제의 중심에 있지만, 오래 되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들을 발생시킨 사회적 대립에 기름을 부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다. 그 일가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이 모두 밝힐 일이지만 검찰도 믿지 못하겠다는 일부 언론도 있다.

자꾸 박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편을 든다는 인상을 줄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흥분해 있을 때는 누군가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씨 일가가 역사의 심판대에 설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축재가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졌느냐일 것이다. 요즘에야 뉴스를 보며 알게

된 사실인데, 박대통령이 부모 모두를 잃고 어린 동생들과 함께 비탄과 절망에 처해 있었던 기간이 18년이었다고 한다. 그 괴롭고 길었던 세월 동안에 유일하게 기댄 곳이 최씨 일가였다는 것이다.

흔히 권력 근처에서 단물만 얻어먹던 사람들은 그 권력의 붕괴와 함께 모두 떠나가고 그들이 떠받들던 권력자는 홀로 남아 배신감의 쓰라림을 맛보는 예는 역사에 얼마든지 있었다. 박대통령의 곁에는 그래도 최씨 일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박대통령 일가의 불행에 대한 필자의 연민 때문일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판단은 아직도 시비의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지난했던 시대에 4천만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역사의 공이 있지 않은가? 그런 공로야말로 역사적 업적이고 선행 중의 선행 아닌가? 가난한 이웃의 어려움을 돕겠다는 사람들이 4천만의 배고픔을 해결해준 그 정치적 업적은 선행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행하는 작은 베품만이 선행이고 남이 하는 커다란 베품은 선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없겠지만은, 종교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들이 분명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 부녀는 최소한 개인이나 가정을 위한 부정축재는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그만한 청렴을 유지한다는 것은 행하기 어려운 덕목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 더군다나 그 가정은 철저히 깨졌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적 경제정책의 열매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지 않은가?

위와 같은 그 가정에 대한 평가는 국제적 정치계에서도 인정하는 객관성을 띄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의 사태가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에 따라 나라의 위신이 제대로 설 수도 있고 아니면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검찰이 밝혀내야 할 핵심과제는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최씨 일가가 부정축재를 한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는 것이다. 현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적 빈털털이로 추락했던 고난의 18년이었는가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인가?

가 들어나게 될 것이다. 그 18년 동안에 육영수 장학재단이라는 것이 남겨진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그 유지비가 ‘어린이 대공원’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최씨 일가의 부정축재가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들의 박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최태민씨가 구국봉사단이라는 것을 만들 때 60여 기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2천만원씩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액수가 아닌가? 현재 최순실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재산도 그 일부일 것이다. 육영수 장학재단은 운영비가 모자라 근영씨가 빚을 져야 했고 갚지 못해 최근까지도 소송중에 있다고 한다.

최순실 이전에는 서울의 광장들을 메우는 시위대가 주로 좌파라고 불리는 진보주의자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는 좌파 시위대도 한 몫 끼어들었다가 찬밥신세가 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어제 오늘의 시위가 우파요 보수파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벌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의 한 문구가 떠올랐다.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오.”

시위현장에 뛰어든 사람들이나 언론에서 분개하는 기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많기에 그 비난의 중심에 ‘오방색 복주머니’가 등장했을 것이다. 복주머니는 무당들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특히 한 해의 첫날인 설날에 ‘복조리’와 함께 주고받은 선물용 물건이 ‘복주머니’였던 것이다. 복주머니 하나를 가지기도 거기에 종교적 색깔을 입혀 국가적 소요사태로 몰고가야 한단 말인가?

국외적으로는 시리아의 난민문제가 세계적 소요사태를 만들고 있다. 거기에다 종교적 종파가 문제의 발단에 있었던 것이 사실일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이 강조되었던 것이고 뉴에이지라는 정신운동도 그 핵심 정신은 지구의 종교들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과학적 의식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은 아직도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체의 고통이 극심하지만 태아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그 좁은 길을 통과하며 장시간 동안 압박을 받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탄생의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그 태아의 일부라고 생각해 보자. 또 사실이 그러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말한 적이 있다. 세상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하나의 문명이 새로운 문명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이었다고 생각하고, 누구 한 사람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고 폭 넓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희망은 앞만 보며 달리려 하지만 위로는 뒤도 보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노래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손에 손 잡고.....



< 5 > ‘잘 나갈 때 조심해야...’

기독교 경전에는 하느님이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신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느님은 똑똑한 사람을 싫어하는 고압적인 하느님인가 하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 느끼는 사실이지만,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뜻이 들어 있는 문구인 것 같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는 박범신씨를 비롯한 잘 나가던 문화계 인사들의 성희롱 스캔들이 보도되었고, 최순실 사건이야말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씨 일가 사건을 보는 눈도 몇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자는 오래 전부터 UFO와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시대라는 시대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최씨 일가의 사건을 보게 된다. 불교에서는 세상 만사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말이 있고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은 주무시지 않고 인간사에 대해 모르시는 일이 없다고 한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운명도 그분들의 의중과 손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일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었을까? 즉 영애였던 근혜씨가 양부모를 잃고 비탄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권력적으로도 고립무원이 되었을 때 가족처럼 곁을 지켜준 최씨 일가의 충성심을 하늘이 기특하게 여겼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몇 가지 축복을 내렸는데 박대통령이 권좌에 다시 오르자 방만한 마음이 되어 권력을 이용한 사욕을 채우기에 바빴던 게 아닌가 한다.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세를 확장시킨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배후에 하느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먼저 박태선 장로를 보면 그는 분명 기사이적도 행했기 때문에 전도관이라는 교파가 새로 생겼을 정도로 교세가 급속히 확장되었고 전국 소도시에까지 교회가 세워졌었다. 기사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전도관이라는 그 명칭도 특이하게 한국적 언어인 道라는 단어를 썼다. ‘전도한다’는 말을 그 이전에도 기독교인들이 사용했지만 ‘교회’라는 이름 대신에 ‘전도관’ 즉 도를 전하는 장소라는 뜻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특이하다. 문선명 목사는 미국에까지 건너가 언론기관을 매입했을 정도로 세력을 확장시켰고 ‘성스러운 결혼’이라는 주제로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했다. 즉 동양과 서양이 만나 하나의 부부처럼 화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다.

최태민씨는 여러 종교를 섭렵하는 중에도 불교, 기독교, 천도교, 즉 단군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족종교에 심취했었다고 한다. 바로 뉴에이에서 주장하는 종교적 통합과 벽허물기의 시대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 같다. 또 육영수 여사의 시해사건 후에 최태민씨의 꿈에 나타나 어머니 대신에 아시아의 대통령이 되리라 했다는 딸 근혜에 대한 미래상도 ‘하늘’이 계획했던 청사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이 시대는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여러 우주인들의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증산선생의 예언적 퍼포먼스에 의하면 한국이 이 시대의 제사장 국가가 되리라는 예언과 함께 역시 여성들이 힘을 얻어 남성과 나란히 세상을 이끌어가리라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늘’의 청사진에 포함되어 있었던 역사의 발현이었고, 최씨 일가와와 오랜 인연도 우연한 현상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리를 하게 된다.

오늘의 뉴스에서는 대통령 보좌진들의 집무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는 말도 있고 최순실이 설치했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런데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수천년 전에 에녹을 하늘나라로 소환해서 이 시대의 한국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김과 동시에 축복도 내려주었는

데도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며 싸우기만 하니 너희 속내를 다 알고 있다는 경고가 아닐까?

청와대에 설치되었다는 몰래 카메라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도시’에서는 몰래 카메라 같은 것이 없어도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훤히 다 보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순실 씨 사건이 언론에 터진 것도 그녀의 방만하고 오만하기까지 했던 정신상태에 대한 경고성이 아닐까? 청와대를 둘러싼 이번 사태도 지금까지는 잘 나갔던 한국의 경제발전예 경고를 주기 위한 메시지인지도 모른다.

잘 나가던 조선 사업도 바닥을 치고 있고 한진해운도 겨우 질곡을 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의 청와대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우리의 민족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 같다.

개인도 집단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교훈인데, 돌아서면 잊어먹는 것이 인간의 한계성이니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는 교훈을 얻고 있다.

미안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교보문고로 링크됩니다. 검색창에 책명을 입력하면 즉시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